



권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염경 입법계품 <22>

선재동자의 선지식 탐방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이 "선지식들을 친근하고 공양함은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이기 때문에 이 일에 고달파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 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덕은 비구, 해운 비구, 선주 비구를 필두로 하여 50여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선재동자가 이들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묻는 내용이 한결같이 같다고 하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이미 아늑하다 삼막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아직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의 행을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자오니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부디 말씀하여 주십시오."

발보리심 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우어 준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선재동자가 보리심을 발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선지식이 선재동자에게 열드러 예경하면서 그의 대중들에게 선재동자를 본받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선지식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기까지 하면서 보살을 교화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도시와 시골, 온갖 마을에 있는 중생들의 처소에서 갖가지 형상과 위와, 여러 가지 음성과 언론으로 깨달음의 삶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자신들이 특득한 바를 사람들에 가르치면서 살아간다. 이들 선지식들은 이른바 '생사(生死)로 부터 해탈한다'든가 '생사를 초월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의 삶이란 현실의 중생세계의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재동자는 이러한 여러 선지식들을 탐방하면서 일체의 세계에서 두루 널리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보현의 덕(德)을 갖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지식들의 가르침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한 가지씩의 법문을 설한 뒤에, "나

이러한 선지식들에 대해 선재동자는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따르려 한다. 선지식을 지극하게 공경하는 선재동자의 자세는 다음과 같은 입법계품의 경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선재동자는 해탈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며... 양모하며 눈을 흘리면서 입심으로 생각하기를 '선지식을 의지하며 섬기고 공경하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지혜를 보았으니, 선지식에게 거스르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선지식에 아첨하거나 속이는 마음이 없으며 마음으로 선지식을 항상 존중한다. 선지식에게 어머니라는 생각을 일으키야 하니 모든 무익한 법을 버리게 하라. 선지식에게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키야 하니 모든 선한 법을 내게 하는 까닭이다' 라고 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가?' 질문 두루 자비 베풀 수 있는 보현의 덕 터득

서 보더라도 입법계품의 내용이 진실로 진정한 인간의 삶을 지향하려는 사람을 위한 얘기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50여 선지식들은 대부분 현실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사문도 있고 바라문도 있다. 또한 고행하는 수행자·의사·장사꾼·배사공·기술자·거리의 여인 등 현실세계의 온갖 신분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는 다만 이 한 가지의 법문만을 알 뿐이며, 보살들의 여러 가지 훌륭한 덕행이나 경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식들은 어디에 사는 누구를 찾아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물으라고 권한다. 이들 선지식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경계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겸손함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진지하게 가르쳐 준다.

"선재동자는 비록구사산인 앞에 나아가서 오체투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이제 진실로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문이니, 저로 하여금 진실한 도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법이니 여래의 지위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문의 예를 통해 보더라도 선재동자가 선지식들에게 얼마나 존경심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식을 존경하는 만큼 그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르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입법계품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진실로 보리심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과 '선지식에 대해 선재동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생명의 기원과 진화

지나호에 불교의 '이제(二諦)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제의 원리란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되어 있어, 물질의 앞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속제(俗諦) 혹은 유위법(有爲法)이라고 부르고, 물질의 뒷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 불교에서는 제일의 눈에 보이지 않아 불교에서는 제일의(第一義諦) 혹은 무위법(無爲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무위법이 마치 '초의식'과 같은 성질이 있어 스스로 창조하고 조직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불교의 이제(二諦)의 원리를 이용하여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현대의학에서는 생물의 기원과 사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어떤 동물이 추운 기후에 이겨내기 위하여 두터운 모피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다윈의 해석에 의하면 동물은 자연의 압박에 이겨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모피를 생산하는 DNA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순전히 '우연'에 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윈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생물은 '우연'에 의해서만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돌연변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다윈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설명은 옮겨 말한 부분도 있고 틀리게 말한 부분도 있다. 옮겨 말한 부분은 사람은 단세포에서 진화하였다는 부분이다.

무위법, '초의식' 성질 있어 조직능력 존재 생물 목적의식 가지고 스스로 환경에 적응

람의 진화에 관하여는 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하여 왔다. 다윈은 <종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지구가 우주로부터 탄생하고 지구 위에 탄소, 산소, 수소, 질소 등과 같은 화학물질이 수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우연적이고도 극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들 화학물질로부터 단세포가 기원하였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복잡한 인간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않는다. 그리고 다윈의 틀린 부분은 '우연한 돌연변이'에 관한 주장이다. 불교에서는 '이제의 원리'에 의하여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뒷면에는 '초의식'이 있어 자기조직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며, 따라서 무기질도 자기조직하는 능력에 의해서 합목적적으로 세포를 만들 수 있으며, 일단 세포가 되면 세포 자체도 '초의식'이 있고, 세포가 수없이 모인 식물이나 동물도 '초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초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물은 필요에 따라서 목적의식을 갖고 스스로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화의 논리이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다시 말하면 생명체의 기원은 '우연의 일회적인 사건'에 의해서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창조된 생명체는 "자연의 선택과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하여 진화를 거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서 화두는 맛이 없는 다만 연구일 뿐이다. 만질 수도 없고, 붙여 태울 수도 없다.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일 뿐,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제하지 않고, 그곳에 어둠의 심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낱같은 화두에 자신을 맡기면서, 대혜종과 선사사 말하지 않았던가? 그때 출연히 늙은 쥐가 소뿔에 들어가 곧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리라고, 그곳에서 산새가 날아 올라감을 보리라고.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문' ⑬

화두의 두가지 뜻

보조의 삼현문(三玄門)에 대한 해석은 교학과는 다른 선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이다. 체중현(體中玄)은 교학에서 말하는 성품의 바탕을 구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개념적인 견해가 존재하기에 선문답의 구(句)로서 부정하고 불발의 깊은 이치를 드러낸다. 이것이 구중현(句中玄)이다. 그러나 구중현도 역시 펼쳐낸다는 지견이 남아 있는 관계로 다시 현중현(玄中玄)의 방과 할로서 그것을 털어내 깊은 침묵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삼현문의 각 단계는 부정과 드러냄이란 과정을 포함한다. 체중현에서는 교학의 논리적인 개념을 펼쳐내고, 본래의 바탕을 드러낸다. 구중현에서는 화두에 의해서 본래의 바탕이라는 교학의 흔적을 타파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에 제한하

게 한다. 현중현에서는 펼쳐낸다는 화두의 의미까지 벗어던지고 침묵 자체를 체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삼현문에는 부정과 드러냄의 변증적 현상을 갖는다. 그 중에 화두가 있다. 부정은 교학의 개념적인 흔적을 벗겨내면, 깊은 침묵의 이

하게 된다. 이 순간에 보조는 경전을 머리에 이고 법당을 돌면서, 눈물을 흘렸다. 덕산의 제자인 보안도 선사는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이란 삼구 밖에 별도로 일구를 두었는데, 오는 사람에게 '무엇이 삼구(三句) 밖에 일구(一句인가)' 라고 질문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소리를 질러보라. 귀가 멀고, 하늘이 부서지듯이, 그러면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마른다. 그 때, 보안도 선사는 말하였다. "내게 묻는다면, 남야과 천태라 하리라" 했다. 삼구 안에 있으면, 병을 깨뜨린다. 삼구 밖에 있으면, 온전히 드러낸다. 화두를 참

고, 어떤 때는 삼구 밖에서 핵심을 보았다. 이것으로 보면, 화두는 삼구 안의 병을 깨뜨리기도 하고, 삼구를 벗어난 뜻을 크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보조는 말한다. 화두를 철저히 참구하는 이들은 삼구 안이니, 밖이니, 병을 깨뜨린다. 진리를 드러낸다는 생각이 없다. 오히려 병을 깨뜨린다는 생각이 숲에서 길을 잃게 하고, 진리를 온통 드러낸다는 의지가 바로 의식의 강물에 떨어진다. 활구는 살아 있는 삶이다. 그곳에 다시 개념적인 이해를 내지 말라.

활구는 살아있는 삶, 개념적 이해 말라

치가 절로 드러난다. 전자를 잘못된 이해를 깨뜨린다는 의미에서 파병(破病)이라고 하고, 후자를 진리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제시(提撕)라고 한다. 병을 깨뜨리면, 건강은 곧장 회복된다. 본래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에서 자유로운 순간에 모든 법계가 그대로 여래의 출현임을 체득

구하는 그때는 삼구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장로 선사는 어느 날 말하였다. 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셋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문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 반도 있고, 셋도 깨져 버리니, 이제야 못말이 차가운지 알겠다. 또한 운문선사는 이렇 때는 삼구로 설명하

■ 인경(禪堂연구원)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이 시대 최고의 명리학 이론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출간! 이 책 한 권이면 누구나 다 팔자 명리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본서는 팔자 명리학을 <팔자 심리학>으로까지 발전시켜 놓으신 <대만> 명리학계의 대가이셨던 <하 건 충> 선생이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해 내셨던 고급명리학 이론들을 15년간 명리학 연구를 해온 저자(오산 정대균)가 우리말로 쉽게 재구성 편집한 것이라, 일반인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서의 주요 장점 :

- 팔자학의 제반 근본원리 규명(오행, 십천간, 십이지지, 창조원리 등).
- 간단한 <수학공식>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희운산>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강약운산, 음양운산 및 구조운산).
- 최고급 사주분석이론인 심리분석론, 궁위론, 변성 및 변궁론, 일간 진입론 등 공개. 그 중 <일간 진입론>은 명리학 사상 최고급 수준의 명리학이론임.
- 각종인연 (육친, 재물, 지위, 결혼, 등)분석에 관한 고급 추명 비결 공개.
- 십이지지 상호간에는 <정.반.합>의 법칙 및 <사상(四象)운동>에 의해 <2중의 상호 작용원리>가 존재함을 공개.
- 대운 및 유년운 해석비결 공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하기 홈페이지 주소를 방문하셔서 본서의 자세한 내용소개 및 구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중 서점에는 판매를 하지 않음. www.8-fortunecode.com

사주공부를 해본 여성으로서, 본 연구소에서 함께 일할 여성직원 한 분을 찾습니다 (30-40세 사이.)

www. 8-fortunecode.com

오산팔자심리학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779-15호 전화: (02) 831-0055 팩스: (02) 831-0058 H·P: 011-208-0051

반야심경반지

반야심경 270자가 각인된 반지를 펼친 모습

국내 최초로 제작된 반야심경반지 18K Gold 폭 8mm 5.5g (수공이므로 ±5% 오차) 반지 내부에는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정밀하게 각인(양각)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농협 131-01-368761 예금주: (주) 엑스피어 금액: 198,000원

주식회사 엑스피어 문의및신청전화 031-382-3719, 080-382-3719 홈페이지 <http://www.xpiailand.com>

간(肝) 건강애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산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동종 웅덩과 비갈만한 지리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지리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청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온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